

제주 백수오 높은이랑 재배효과 구명

양석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064)760-7412

제주백수오를 지역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도 추진하였고, 상품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재배 형태 및 종자, 종묘에 따른 생산성을 구명하고자 연구를 추진하였다.

○ 뿌리 생산량을 증대하고자 하면 높은 이랑 재배는 필수

일반적으로 도내 백수오 재배농가에서는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두둑 높이를 10~15cm 정도의 낮은 이랑을 만들어 재배하고 있다. 2차 작업을 통해 두둑 높이를 25cm 내외로 높여 재배하면 뿌리 생장이 좋아져서 수량성이 향상되었다. 두둑을 높이면 통기성이 좋아지고 토양 온도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지하부 생육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잦은 강우 및 폭우 등에 따른 피해도 줄여줄 수 있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이랑형태별 묘 종류에 따른 지상부 및 뿌리 생육 변화('16~'17)

이랑 형태	묘 종류	초장 (cm)	줄기굵기 (mm)	생존율 (%)	뿌리길이 (cm)	뿌리굵기 (mm)	생근중 (g/주)
높은 이랑	종 자 직 파	119.7	3.79	83.5	27.4	13.47	145.5
	트 레 이 묘	106.0	4.30	85.0	28.7	10.78	152.4
	1년생종근	124.7	4.83	86.5	35.6	15.27	165.9
	평 균	116.8	4.30	85.0	30.5	13.17	154.6
낮은 이랑	종 자 직 파	110.3	3.70	76.5	27.8	9.35	107.0
	트 레 이 묘	111.1	4.40	87.5	27.0	12.75	130.9
	1년생종근	103.9	4.60	83.5	28.5	16.02	109.8
	평 균	108.4	4.23	82.5	27.8	12.71	116.1



○ 백수오 재배 중 주로 발생하는 병해충 관리 방법

백수오 재배 중에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는 갈색무늬병, 시들음병 등이 있으며, 해충으로는 진딧물, 십자무늬긴노린재 등이 있다.

갈색무늬병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예방법으로는 통풍과 채광을 좋게 하고 건실하게 키워 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시들음병은 연작포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발병 초기에는 잎이 자주색으로 변하고, 병이 진전되면 전체가 시들어 죽게 된다. 예방법으로는 심기 전에 종자나 종근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진딧물은 백수오가 무성하면 계속 발생하며, 새 잎과 같은 어린 조직에 서식하면서 수액을 흡즙한다. 피해 잎은 오그라들어 정상적인 광합성을 할 수 없고 회복되지 않는다. 십자무늬긴노린재는 4월 하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며, 5~8월에 1세대 성충, 8~10월에는 2세대 성충이 출현하며, 2세대 성충이 토양이나 낙엽 밑에서 월동한다. 진딧물이나 십자무늬긴노린재는 생육 후기까지 흡즙하여 큰 피해를 줌으로 철저한 예찰과 방제가 필요하다.